

익산시 홍보대사 박현경 프로골퍼, 2000만원 기부

프로골퍼 박현경(한국프로골프협회, 23)은 지난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된 성금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현경 프로골퍼는 "생활고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의 홍보대사인 박현경 선수의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경 선수는 평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 초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고, 작년에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 2,350여 만원을 모험동 저소득 청소년 가구 117세대에 지원했다.

또한 아버지와 패밀리 골퍼대회에서 우승한 성금 5000만원을 장애인 활체어 탑승 차량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사이어티에 기탁하며 본격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소장 김현교)은 8월 19일 충북환경보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 2023년 건강나누리 캠프를 문경 자연생태박물관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친환경 체험과 활동 놀이로 정서 안정과 긍정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숲 밭출놀이와 박물관 에코타이핑을 진행하고 특히 MBTI 온라인 테스트(성격유형검사)를 통해 가족의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처방도 준비했다. 오후에는 충북환경보전센터에서 환경성 물질과 질관에 대한 강의와 퀴즈 9개 항목에 대한 알리지 검사를 실시하며, 집에서 간단하게 진단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유관기관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협력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환경성질환 가족들이 생태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전대, 무주군민 대상 오픈강좌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석현)은 지난 24일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아웃 콘텐츠의 이해' 오픈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무주군민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아웃 콘텐츠의 이해 오픈강좌는 아웃에 대한 이해(개념, 활용, 활용방안), 아웃 기본 편집 익히기 아웃 템플릿 사용하기 등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이뤄졌다. 오픈강좌 참여자 무주군민 이은주씨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아웃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무주군민을 위한 이런 다양한 오픈강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조석현 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오픈강좌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정읍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성과보고회 개최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규희)은 글로벌인재양성지원 위한 정읍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졌다. 정읍 관내 초·중·고등학생 88명으로 이루어진 '정읍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단'은 해외역사와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험 중심의 역사 탐방으로 건강한 역사관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했다. 해외역사문화탐방의 주요 내용으로 일본 오사카 금강국제학교(OKIS)를 방문하여 일본 현지 학생과의 일대일 체험학습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정사초 통만들기' 수업을 운영했고,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오사카 의회를 방문하여 타국의 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4·3사건 위령비와 강제동원 위령비가 안치된 통국사를 방문하여 아픈 우리 역사에 공감하고 기억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탐방의 금당벽화가 있는 범룡사 세계문화유산인 동대사 등 다양한 일본 역사 문화를 체험했으며, 사람과 미래방센터에 방문하여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25일 보고회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1인 1권 해외역사문화탐방 책과 교육과정연계 워크북 등을 공유하였으며, /정은=김대환기자



공동으로 전통문화 체험수업을 운영한 강신철 오사카 금강국제학교장도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을 응원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전북도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인 학생해외연수 확대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추진한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으로 학생들이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규희 교육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역사문화탐방 활동으로 건강한 역사관을 갖춘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읍지역의 학생들이 당당하고 멋진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김대환기자

전주교대 김태현 교수 등 참여 숲 생태체험 여름 환경캠프

지난 22~23일 1박2일 동안 전북자연환경 연구원(무주)에서 숲 생태체험 여름 환경캠프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김태현 교수와 본교 재학생인 학부생 11명이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숲의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며 숲의 다양한 생태적 특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배우고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교육 현장에서 환경과 생태 교육을 접목시켜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연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에 녹아들어 모든 생태계와 하나가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이번 환경캠프에서는 백두생태연구소의 김현 소장 등 3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이달의 도전 주인공 송미리 주무관 선정

전북도 예산과 송미리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7월에는 1~6월까지 주인공으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 중 업무 공적도 등을 심사해 '이달의 도전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선정된 송미리 주무관은 지난 5월 해피비어스 주인공으로 추천됐으나, 최종 심사과정에서 간발의 차로 주인공으로는 선발되지 못했다. 송 주무관은 도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예산관련 문의 또는 애로사항을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예산업무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프린터 고장이나 사무용품 부족 등 사소한 일도 먼저 나서 해결했다. 현안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직원 생활행



기기 간식시간 등 소통을 이끌어내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송미리 주무관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예산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수해복구 현장서 구슬땀 흘리는 육군 장병들

전북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예하 105여단 3대대장(중령 윤승규) 이하 장병 10여 명은 지난 집중호우로 무너진 민경을 만경리 주택 담장 철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 담장이 무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너진 담장 철거와 배수로를 105여단 윤승규 3대대장 이하 장병들이 정비하고 있다. 이날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을 격려한 김창환 만경읍장은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 장병들이 이번 호우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며 인적 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무주군, 응원하는 마음 담아 고향사랑기부 '훈훈'

무주군은 25일 전북공공물제자공업협동조합 송기선 이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송기선 이사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뒷받침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돼 무척 흐뭇하다"라며 "평소 무주군에 관심이 있었는데 기부까지 하게 돼 더 기쁘고 오늘 전달된 기부금이 무주발전에 소중히 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www.ilovegdyang.go.kr)은 1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주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담례(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 성남 대회서 금메달 획득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2023년 성남 세계태권도한민대회에 참가,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1~24일 4일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57개국 45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해 격파, 시범 창작 품새, 태권체조 등 12개 종목 58개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에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는 1학년 신태민 학생과 4학년 김유리 학생이 '멀리뛰어격파(남자)/시니어 1, 2, 3, 미스터', '높이뛰어격파(여자)/시니어 1, 2, 3, 미스터' 파트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태권도체육학과 졸업생인 조훈희 전주비전대 교직원 은 개인종합격파(남자)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권도체육학과 고봉수 학과장은 "전주비전대 학생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정리수납·가구 업사이클링 봉사

남원여성새일일터센터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직업교육훈련 리빙케어 정리수납전문가, 가구 업사이클링 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로 한부모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주전면, 자원봉사센터 시 가족센터 등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주전면은 자녀 방의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쓰레기 처리, 자원봉사센터는 수납공간을 위한 선반장 가족센터는 자녀 학습을 위한 의자를 가구업사이클링, 새로가꿈에서는 침대와 책상을 지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료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이 작은 선물이 되어 온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양근 센터장은 "더운 날씨에 한부모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료생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리수납과 가구 업사이클링을 통해 사람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단채로 우뚝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이병택 산외면장, 정읍 장학재단에 100만원 기탁

정읍시 산외면 이병택 면장이 지난 24일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병택 면장의 이번 장학금 기탁은 최근의 빚모임을 통해 받은 주위의 따뜻한 위로와 감사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환원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면장은 "정읍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인재양성에 동참해 지역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김대환 기자



신창호씨, 고향 순창군에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전북 순창군 출향인들이 연이여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을 기부하며 순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군은 25일 순창 북흥면 남양리 출신인 신창호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북흥면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한 (주)제이텍 정회 대표의 친구로 들은 고향인 순창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고, 더 많은 출향인들이 순창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앞장서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북흥면 출신 신창호씨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고향인 순창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더 많은 향우들이 동참해 고향사랑기부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고향인 순창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